

매일 미사 전례 독서

2011년 4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신심 미사

주님 십자가 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제1독서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셨다.>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31ㄴ-39

형제 여러분, ³¹ 하느님께서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³²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³³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³⁴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³⁵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³⁶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³⁷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

³⁸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³⁹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8(17), 2-3.5-6.7.19-20(◎ 7ㄱ)

<선창자가 후렴을 선창하면 교우들은 후렴을 받아 반복한다.>

◎ 곤경 중에 나 주님 부르나이다.

<이어지는 시편은 선창자가 하고 교우들은 후렴을 반복한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웁니다. ◎

- 죽음의 오랏줄이 나를 두르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삼키며, 저승의 오랏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네. ◎
- 곤경 중에 나 주님 부르고, 하느님께 도움 청하였더니, 당신 성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부르짖는 내 소리 그분 귀에 다다랐네. ◎
- 환난의 날에 원수가 나를 덮쳤지만, 주님은 내 버팀목 되어 주셨네.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에, 넓은 들로 이끄시어 나를 구하셨네. ◎

복음 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하늘의 모후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성모 마리아 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괴로이 서 계셨네.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그분의 어머니가 서 계셨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9, 25-27

그때에 ²⁵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²⁶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²⁷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심 미사 주님 부활 때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제1독서 <나는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21, 1-5

¹ 나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²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³ 그때에 나는 어좌에서 올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⁵ 그리고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이사 61,10 그르마.11: 62,2-3

- ◎ 마리아 님, 당신은 하느님의 도성이시니, 그 안에 정의가 살아 있나이다.
-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신부가 패물로 단장하듯, 그분이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겹옷을 돌려 주셨네. ◎
- 땅의 새순이 돋아나고, 동산에서 새싹이 솟아나듯, 주 하느님은 모든 민족들 앞에, 의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
- 민족들이 너의 의로움을, 임금들이 모두 너의 영광을 보리라. 너는 주님이 몸소 지어 주신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리라. 너는 주님 손에 들린 화려한 면류관이 되고, 너의 하느님 손바닥에 놓인 왕관이 되리라. ◎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님, 기뻐하소서. 십자가 밑에서 눈물로 아드님의 고통을 함께하셨으니, 이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소서.
-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께서 되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알려라.>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8,1-10

¹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 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²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³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⁴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⁵ 그때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⁶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⁷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⁸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⁹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옆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¹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1일
사순 제3주간 금요일

제1독서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 말하지 않으렵니다.>

▣ 호세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14, 2-10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²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라. 너희는 죄악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³ 너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와 아뢰어라. ‘죄악은 모두 없애 주시고, 좋은 것은 받아 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황소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바치렵니다. ⁴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군마를 타지 않으렵니다.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 말하지 않으렵니다. 고아를 가엾이 여기시는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⁵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풀렸으니, 이제 내가 반역만 꾀하는 그들의 마음을 고쳐 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리라. ⁶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 주리니,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처럼 뿌리를 뻗으리라. ⁷ 이스라엘의 싹들이 돌아나, 그 아름다움은 올리브 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으리라.

⁸ 그들은 다시 내 그늘에서 살고, 다시 곡식 농사를 지으리라. 그들은 포도나무처럼 무성하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치리라. ⁹ 내가 응답해 주고 돌보아 주는데,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싱싱한 방백나무 같으니, 너희는 나에게서 열매를 얻으리라.

¹⁰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깨닫고, 분별 있는 사람은 이를 알아라. 주님의 길은 올곧아서, 의인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죄인들은 그 길에서 비틀거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81(80), 6ㄷ-8ㄱ, 8ㄴ-9, 10-11ㄴ, 14와 17(◎ 11ㄱ과 9ㄴ 참조)

◎ 나는 주님, 너의 하느님이니, 너는 나의 말을 들어라.

○ 전에는 모르던 말씀을 나는 들었네.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풀어 주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내려 주었다. 곤경 속에서 부르짖자 나는 너를 구하였다.” ◎

○ “천둥 치는 구름 속에서 나는 너에게 대답하였으며, 프리바의 샘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들어라 내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타이른다. 이스라엘아, 부디 내 말을 들어라.” ◎

- “너에게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낯선 신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주님, 너의 하느님이다. 너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 올렸다.” ◎
- “내 백성이 내 말을 듣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이 내 길을 걷기만 한다면, 내 백성에게 나는 기름진 참밀을 먹이고, 바위틈의 석청으로 배부르게 하였으리라.” ◎

복음 환호송

마태 4,17 참조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니,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28ㄱ-34

그때에 ²⁸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²⁹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³⁰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³¹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³² 그러자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³³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³⁴ 예수님께서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2일
사순 제3주간 토요일

제1독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의다.>

▮ 호세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6,1-6

¹ 자, 주님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잡아 찢으셨지만 아픈 데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시리라. ² 이를 뒤에 우리를 살려 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게 되리라. ³ 그러니 주님을 알자. 주님을 알도록 힘쓰자. 그분의 오심은 새벽처럼 어김없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비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시리라.

⁴ 에프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신의는 아침 구름 같고, 이내 사라지고 마는 이슬 같다. ⁵ 그래서 나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찌어 넘어뜨리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그들을 죽여, 나의 심판이 빛처럼 솟아오르게 하였다. ⁶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의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51(50), 3-4, 18-19, 20-21 ㄱ(◎ 호세 6, 6 참조)

- ◎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애로다.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당신은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반기지 않으시리이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누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 ◎
- 당신의 자애로 시온을 돌보시어,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 주소서. 그때에 당신이 의로운 희생 제사, 제물과 번제를 즐기시리이다. ◎

복음 환호송

시편 95(94), 7ㄹ, 8ㄴ 참조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바리새자가 아니라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 9-14
그때에 ⁹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¹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¹¹ 바리사이는 꼴꼴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¹² 저는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¹³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¹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3일 사순 제4주일

제1독서 <다윗이 이스라엘 임금으로 기름부음을 받다.>

▣ 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6.1ㄱ.ㄴ.ㄷ.6-7.10-13ㄴ

그 무렵 ¹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 두었다.”

⁶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⁷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¹⁰ 이사가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¹¹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는 “막내가 아직 남아 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¹² 그래서 이사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불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¹³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3(22),1-3ㄱ.3ㄴ-4.5.6(◎ 1)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끌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5,8-14

형제 여러분, ⁸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⁹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¹⁰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¹¹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¹²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¹³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¹⁴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8,12 참조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눈먼 사람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41<또는 9,1.6-9.13-17.34-38>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 부분을 생략한다.

그때에 ¹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²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이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³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 ⁴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⁵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⁶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⁷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⁸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 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⁹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이오.”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¹⁰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¹¹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¹²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¹³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¹⁴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였다. ¹⁵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¹⁶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¹⁷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¹⁸ 유대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¹⁹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²⁰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²¹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²² 그의 부모는 유대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²³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²⁴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²⁵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²⁶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²⁷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²⁸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²⁹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³⁰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³¹ 하느님께서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 주십니다.³²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³³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³⁴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오?”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³⁵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³⁶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³⁷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³⁸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³⁹ 그때에 예수님께서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⁴⁰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새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⁴¹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4일 사순 제4주간 월요일

제1독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5,17-2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¹⁷ “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예전의 것들은 이제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¹⁸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리라. ¹⁹ 나는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안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²⁰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도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으리라. 백 살에 죽는 자를 젊었다 하고, 백 살에 못 미친 자를 저주받았다 하리라. ²¹ 그들은 집을 지어 그 안에서 살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0(29),2와 4.5-6.11-12과 13나(◎ 2가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기록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복음 환호송

아모 5,14 참조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너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찾아라. 그래야 살리라. 그래야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 43-54

그때에 ⁴³ 예수님께서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래아로 가셨다. ⁴⁴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⁴⁵ 예수님께서 갈릴래아에 가시자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에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⁴⁶ 예수님께서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래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앓아누워 있었다. ⁴⁷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래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 주십사고 청하였다.

⁴⁸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⁴⁹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⁵⁰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⁵¹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 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⁵²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한 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⁵³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⁵⁴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래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5일 사순 제4주간 화요일

제1독서 <나는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보았고,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이가 구원되었다(부활 성야 세례 서약 갱신 후 노래).>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47,1-9.12

그 무렵 천사가 ¹ 나를 데리고 주님의 집 어귀로 돌아갔다. 이 주님의 집 정면은 동쪽으로 나 있었는데, 주님의 집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은 주님의 집 오른쪽 밑에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 갔다. ² 그는 또 나를 데리고 북쪽 대문으로 나가서, 밖을 돌아 동쪽 대문 밖으로 데려갔다. 거기에서 보니 물이 오른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³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는데, 그의 손에는 줄자가 들려 있었다. 그가 천 암마를 재고서는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발목까지 찼다. ⁴ 그가 또 천 암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가 다시 천 암마를 재고서는 물을 건너게 하였는데, 물이 허리까지 찼다. ⁵ 그가 또 천 암마를 재었는데, 그곳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있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치기 전에는 건널 수 없었다. ⁶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이아, 잘 보았느냐?” 하고서는, 나를 데리고 강가로 돌아갔다.

⁷ 그가 나를 데리고 돌아갈 때에 보니, 강가 이쪽저쪽으로 수많은 나무가 있었다. ⁸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⁹ 그래서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¹² 이 강가 이쪽저쪽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는데, 잎도 시들지 않으며 과일도 끊이지 않고 다달이 새 과일을 내놓는다.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46(45), 2-3. 5-6. 8-9(◎ 8)

- ◎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네.
- 하느님은 우리의 피신처, 우리의 힘. 어려울 때마다 늘 도와주셨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네. 땅이 뒤흔들린다 해도, 산들이 바다 깊이 빠진다 해도. ◎
- 강물이 즐기 즐기 하느님의 도성을,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거처를 즐겁게 하네. 하느님이 그 안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네. 하느님이 동틀 녘에 구해 주시네. ◎
-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 야곱의 하느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네. 와서 보아라, 주님의 업적을, 이 세상에 이루신 놀라운 일을! ◎

복음 환호송

시편 51(50), 12ㄱ. 14ㄱ 참조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당신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소서.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었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 1-3ㄱ. 5-16

- 1 유다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 2 예루살렘의 '양 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벳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다섯 채 팔렸는데, ³ 그 안에는 눈먼 이, 다리 저는 이, 팔다리가 말라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 5 거기에는 서른여덟 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⁶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 7 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 8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⁹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였다. ¹⁰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오. 들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¹¹ 그가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신 그분께서 나에게,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¹² 그들이 물었다.

“당신에게 ‘그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요?” ¹³ 그러나 병이 나은 이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였다. 그곳에 군중이 몰려 있어 예수님께서 몰래 자리를 뜨셨기 때문이다.

¹⁴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시자 그에게 이르셨다. “자, 너는 건강하게 되었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¹⁵ 그 사람은 물리가서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유대인들에게 알렸다. ¹⁶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여, 그분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6일 사순 제4주간 수요일

제1독서 <내가 너를 백성을 위한 계약으로 삼았으니, 땅을 다시 일으켜라.>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9, 8-15

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내어 백성을 위한 계약으로 삼았으니, 땅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해진 재산을 다시 나누어 주기 위함이며, ⁹ 갇힌 이들에게는 ‘나와라.’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어라.’ 하고 말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가는 길마다 풀을 뜯고, 민둥산마다 그들을 위한 초원이 있으리라. ¹⁰ 그들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며, 열풍도 태양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리니, 그들을 가없이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며, 샘터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¹¹ 나는 나의 모든 산들을 길로 만들고, 큰길들은 돋우어 주리라.

¹² 보라, 이들이 먼 곳에서 온다. 보라, 이들이 북녘과 서녘에서 오며, 또 시냇물의 땅에서 온다. ¹³ 하늘아, 환성을 올려라. 땅아, 기뻐 뛰어라. 산들아,

기뻐 소리쳐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로하시고, 당신의 가련한 이들을 가엾이 여기셨다.

¹⁴ 그런데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지. ¹⁵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45(144),8-9.13ㄷ-14.17-18(◎ 8ㄱ)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네.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네. ◎
-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복음 환호송

요한 11,25ㄴ.26ㄱ 참조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7-30

그때에 ¹⁷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¹⁸ 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¹⁹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²⁰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 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 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²¹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²²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²³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²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²⁵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²⁶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²⁷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²⁸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²⁹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³⁰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옳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7일 사순 제4주간 목요일

제1독서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32, 7-14

그 무렵 ⁷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⁸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수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다.’ 하고 말한다.”

⁹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뻗뻗한 백성이다. ¹⁰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 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¹¹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¹² 어찌하여 이집트인들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치려고 이끌어 내서는, 산에서 죽여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 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¹³ 당신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 하며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¹⁴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6(105), 19-20, 21-22, 23(◎ 4ㄱ)

- ◎ 주님, 당신 백성 돌보시는 호의로 저를 기억하소서.
- 그들은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금붙이로 만든 우상에 경배하였네. 풀을 뜯는 소의 형상과 그들의 영광을 맞바꾸었네. ◎
- 이집트에서 위대한 일을 하신 분,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느님을 잊었네. 함족 땅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갈대 바다에서 이루신 두려운 일들을 잊었네. ◎
- 당신이 뽑은 사람 모세가 아니었다면, 그들을 없애 버리겠다 생각하셨네. 모세는 분노하시는 그분 앞을 막아서서, 파멸의 진노를 돌리려 하였네. ◎

복음 환호송

요한 3, 16 참조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하느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 온 모세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31-47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³¹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³²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³³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³⁴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³⁵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³⁶ 그러나 나에게서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³⁷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³⁸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³⁹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⁴⁰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⁴¹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⁴²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⁴³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⁴⁴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⁴⁵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 온 모세이다. ⁴⁶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게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⁴⁷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8일 사순 제4주간 금요일

제1독서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내리자.>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2,17.12-22

악인들은¹ 옳지 못한 생각으로 저희끼리 이렇게 말한다.

¹² “의인에게 텃을 놓자. 그자는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자,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하며, 율법을 어겨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나무라고, 교육받은 대로 하지 않아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탓한다. ¹³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지녔다고 공언하며, 자신을 주님의 자식이라고 부른다.

¹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를 질책하니,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짐이 된다. ¹⁵ 정녕 그의 삶은 다른 이들과 다르고, 그의 길은 유별나기만 하다. ¹⁶ 그는 우리를 상스러운 자로 여기고, 우리의 길을 부정한 것인 양 피한다. 의인들의 종말이 행복하다고 큰소리치고, 하느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자랑한다.

¹⁷ 그의 말이 정말인지 두고 보자. 그의 최후가 어찌 될지 지켜보자. ¹⁸ 의인이 정녕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적대자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 주실 것이다.

¹⁹ 그러니 그를 모욕과 고통으로 시험해 보자. 그러면 그가 정말 온유한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의 인내력을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²⁰ 자기 말로 하느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니, 그에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내리자.”

²¹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이 틀렸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²² 그들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지 못하며,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흠 없는 영혼들이 받을 상급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4(33),17-18.19-20.21과 23(◎ 19ㄱ)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신다.

○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시리라. ◎

- 그의 뼈를 고스란히 지켜 주시니,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짓값을 벗으리라.
-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신다.

복음 환호송

마태 4,4c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1-2.10.25-30

그때에 ¹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² 마침 유대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¹⁰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²⁵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²⁶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 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²⁷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²⁸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²⁹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³⁰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9일 사순 제4주간 토요일

제1독서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11, 18-20

¹⁸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 주시어 제가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그들의 악행을 보여 주셨습니다.

¹⁹ 그런데도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없애려고 음모를 꾸미는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저 나무를 열매째 베어 버리자. 그를 산 이들의 땅에서 없애 버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²⁰ 그러나 정의롭게 판단하시고, 마음과 속을 떠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 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7, 2-3, 9ㄴ-10, 11-12(◎ 2ㄱ)

◎ 주 하느님,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주 하느님, 당신께 피신하오니, 뒤쫓는 모든 자에게서 저를 구하소서, 저를 구해 주소서. 사자처럼 이 몸 물어 가지 못하게 하소서. 아무도 구해 주는 이 없나이다. ◎

○ 주님, 제 의로움, 제 결백을 보시고, 제 권리를 찾아 주소서. 이제 악인들의 죄악은 끝내시고, 의인들은 굳세게 하소서.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 하느님은 의로우시다. ◎

○ 하느님은 나의 방패, 마음 바른 이들을 구하시는 분. 하느님은 의로우신 심판자, 하느님은 언제나 진노하시는 분. ◎

복음 환호송

루카 8, 15 참조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메시아가 갈릴래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40-53

그때에 예수님의 ⁴⁰ 말씀을 들은 군중 가운데 어떤 이들은, “저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시다.” 하고, ⁴¹ 어떤 이들은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메시아가 갈릴래아에서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⁴² 성경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⁴³ 이렇게 군중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논란이 일어났다. ⁴⁴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⁴⁵ 성전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인들이, “왜 그 사람을 끌고 오지 않았느냐?” 하고 그들에게 물었다.

⁴⁶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고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자, ⁴⁷ 바리사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도 속은 것이 아니냐? ⁴⁸ 최고 의회 의원들이나 바리사자들 가운데에서 누가 그를 믿더냐? ⁴⁹ 율법을 모르는 저 군중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⁵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⁵¹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 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⁵² 그러자 그들이 니코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래아 출신이라는 말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갈릴래아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소.”

⁵³ 그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10일 사순 제5주일

제1독서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리리라.>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7, 12c-14

¹²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¹³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 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¹⁴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30(129), 1-2, 3-4, 5와 6ㄴ-7ㄱ, 7ㄴ-8(◎ 7ㄴc)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제2독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 8-11

형제 여러분, ⁸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⁹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¹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¹¹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1.25-26ㄱ 참조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यो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나는 부활ियो 생명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1-45〈또는 11.3-7.17.20-27.33ㄴ-45〉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부분을 생략한다.

그때에 〈¹ 어떤 이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사는 베타니아 마을의 라자로였다. ²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아 드린 여자인데, 그의 오빠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³ 그리하여〉 마리아와 마르타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⁵ 예수님께서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⁶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⁷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⁸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 바로 얼마 전에 유다인들이 스승님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렵니까?” 하자, ⁹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낮은 열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어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¹⁰ 그러나 밤에 걸어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으므로 걸려 넘어진다.” ¹¹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우리의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¹²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곧 일어나겠지요.” 하였다. ¹³ 예수님께서서는 라자로가 죽었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냥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¹⁴ 그제야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분명히 이르셨다. “라자로를 죽였다. ¹⁵ 내가 거기에 없었으므로 너희가 믿게 될 터이니, 나는 너희 때문에 기쁘다. 이제 라자로에게 가자.”

¹⁶ 그러자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하고 말하였다.》

¹⁷ 예수님께서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¹⁸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열다섯 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¹⁹ 많은 유대인이 마르타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²⁰ 마르타는 예수님께서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²¹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²²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주님께서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²³ 예수님께서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²⁴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²⁵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²⁶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²⁷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²⁸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르타는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스승님께서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하고 가만히 말하였다. ²⁹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³⁰ 예수님께서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타가 당신을 맞으러 나왔던 곳에 그냥 계셨다. ³¹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따라갔다.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 알았던 것이다.

³² 마리아는 예수님께서서 계신 곳으로 가서 그분을 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³³ 마리아도 울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³⁴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³⁵ 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³⁶ 그러자 유대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³⁷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³⁸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³⁹ 예수님께서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⁴⁰ 예수님께서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⁴¹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우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 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⁴²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⁴³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⁴⁴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⁴⁵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11일 사순 제5주간 월요일

제1독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 부분을 생략한다.

그 무렵 <¹ 바빌론에 요야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² 그는 수산나라고 하는 힐키야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수산나는 매우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³ 수산나의 부모는 의로운 이들로써 그 딸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 교육시켰다.⁴ 한편 요야킴은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서 넓은 정원이 그의 집에 맞붙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큰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늘 그를 찾아오곤 하였다.

⁵ 그런데 그해에 어떤 두 원로가 백성 가운데에서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바로 그들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바빌론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재판관인 원로들에게서 죄악이 나왔다.”⁶ 그들이 줄곧 요야킴의 집에 있었으므로, 소송 거리가 있는 이들은 모두 그리로 그들을 찾아갔다.⁷ 한낮에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수산나는 남편의 정원에 들어가 거닐곤 하였다.⁸ 그렇게 그곳에 들어가 거니는 수산나를 매일 눈여겨본 그 두 원로는 수산나에게 음욕을 품게 되었다.⁹ 그들은 양심을 억누르고 하늘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린 채, 의로운 판결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¹⁵ 그들이 알맞은 날을 엿보고 있을 때, 수산나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녀 둘만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날이 무더웠으므로 그곳에서 목욕을 하려고 하였다.¹⁶ 거기에는 숨어서 수산나를 엿보는 그 두 원로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¹⁷ 수산나는 하녀들에게, “내가 목욕을 하게 올리브 기름과 물분을 가져오고 정원 문들을 닫아걸어라.” 하고 말하였다.

¹⁹ 하녀들이 나가자마자 두 원로는 일어나서 수산나에게 달려가²⁰ 말하였다. “자, 정원 문들은 잠겼고 우리를 보는 이는 아무도 없소. 우리는 당신을 간절히 원하오. 그러니 우리 뜻을 받아들여 우리와 함께 잡시다.²¹ 그러지 않으면, 어떤 젊은이가 당신과 함께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이 하녀들을 내보냈다고 증언하겠소.”

²² 수산나는 탄식하며 말하였다. “나는 꿈쩍 못할 곤경에 빠졌소.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나에게 죽음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여도 당신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이오.²³ 주님 앞에 죄를 짓느니,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들의 손아귀에 걸려드는 편이 더 낫소.”²⁴ 그리고 나서 수산나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 두 원로도 수산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더니,²⁵ 그 가운데 하나가 달려가서 정원 문들을 열어젖혔다.

²⁶ 집에 있던 사람들이 정원에서 나는 고함 소리를 듣고, 옆문으로 뛰어들어

가 수산나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다. ²⁷ 원로들이 저희 쪽의 이야기를 하자 하인들은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다. 수산나를 두고 누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²⁸ 다음 날, 수산나의 남편 요야킴의 집으로 백성이 모여들 때, 그 두 원로는 수산나를 죽이겠다는 악한 생각을 가득 품고서 그리로 갔다. ²⁹ 그들이 백성 앞에서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어 요야킴의 아내, 힐키야의 딸 수산나를 데려오게 하시오.” 그러자 백성이 사람을 보냈다. ³⁰ 수산나는 부모와 자녀들과 모든 친척과 함께 나왔다. ³³ 그러자 수산나 곁에 있던 이들과 그를 보는 이들이 모두 울었다.

³⁴ 그 두 원로는 일어나 백성 한가운데에서 수산나의 머리에 자기들의 손을 얹었다. ³⁵ 수산나는 눈물이 가득한 채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³⁶ 그 두 원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단둘이서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이 여자가 여종 둘을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가더니, 정원 문들을 닫아걸고서는 여종들을 내보냈소. ³⁷ 그때에 숨어 있던 젊은이 하나가 이 여자에게 가더니 함께 누웠소. ³⁸ 정원 구석에 있던 우리는 그 죄악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달려갔소. ³⁹ 그리고 둘이서 정을 통하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그자가 우리보다 힘이 세어 붙잡을 수는 없었소. 그래서 그자는 문을 열고 달아나 버렸소. ⁴⁰ 그 대신 이 여자를 붙들고 그 젊은이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⁴¹ 이 여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려고 하지 않았소. 이것이 우리의 증언이오.”

그들이 백성의 원로이며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회중은 〈그들을 믿고〉 수산나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⁴² 그때에 수산나가 크게 소리 지르며 말하였다. “아, 영원하신 하느님! 당신께서는 감추어진 것을 아시고 무슨 일이든 일어나기 전에 미리 다 아십니다. ⁴³ 또한 당신께서는 이자들이 저에 관하여 거짓된 증언을 하였음도 알고 계십니다. 이자들이 저를 해치려고 악의로 꾸며 낸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⁴⁴ 주님께서 수산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⁴⁵ 그리하여 사람들이 수산나를 처형하려고 끌고 갈 때, 하느님께서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깨우셨다. ⁴⁶ 그러자 다니엘이 “나는 이 여인의 죽음에 책임이 없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⁴⁷ 온 백성이 그에게 돌아서서, “그대가 한 말은 무슨 소리요?” 하고 물었다. ⁴⁸ 다니엘은 그들 한가운데에

서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 그토록 어리석습니까? 신문을 해 보지도 않고 사실을 알아보지도 않고, 어찌 이스라엘의 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⁴⁹ 법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자들은 수산나에 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⁵⁰ 온 백성은 서둘러 돌아갔다. 그러자 다른 원로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원로 지위를 주셨으니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설명해 보게.” ⁵¹ 다니엘이 “저들을 서로 멀리 떼어 놓으십시오.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⁵² 사람들이 그들을 따로 떼어 놓자, 다니엘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악한 세월 속에 나이만 먹은 당신, 이제 지난날에 저지른 당신의 죄들이 드러났소. ⁵³ 주님께서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당신은 죄 없는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죄 있는 자들을 놓아주어 불의한 재판을 하였소. ⁵⁴ 자, 당신이 참으로 이 여인을 보았다면, 그 둘이 어느 나무 아래에서 관계하는 것을 보았는지 말해 보시오.” 그자가 “유향나무 아래요.” 하고 대답하였다. ⁵⁵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였다. “진정 당신은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소. 하느님의 천사가 이미 하느님에게서 판결을 받아 왔소. 그리고 이제 당신을 둘로 베어 버릴 것이오.”

⁵⁶ 다니엘은 그 사람을 물러가게 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라고 분부하였다. 그리고 그자에게 말하였다. “유다가 아니라 가나안의 후손인 당신, 아름다움이 당신을 호리고 음욕이 당신 마음을 비뚤어지게 하였소. ⁵⁷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딸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어 왔소. 그 여자들은 겁에 질려 당신들과 관계한 것이오. 그러나 이 유다의 딸은 당신들의 죄악을 허용하지 않았소. ⁵⁸ 자, 그러면, 관계하는 그들을 어느 나무 아래에서 붙잡았는지 나에게 말해 보시오.” 그자가 “떡갈나무 아래요.” 하고 대답하였다. ⁵⁹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였다. “진정 당신도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소. 하느님의 천사가 이미 당신을 둘로 잘라 버리려고 칼을 든 채 기다리고 있소. 그렇게 해서 당신들을 파멸시키려는 것이오.”

⁶⁰ 그러자 온 회중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당신께 희망을 두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⁶¹ 다니엘이 그 두 원로에게, 자기들이 거짓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저희 입으로 입증하게 하였으므로, 온 회중은 그들에게 들고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이웃을 해치려고 악의로 꾸며 낸 그

방식대로 그들을 처리하였다. ⁶²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사형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에 무죄한 이가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3(22), 1-3, 7.34-4.5.6(◎ 4ㄱㄴㄷ)

- ◎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복음 환호송

에제 33, 11 참조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을 기뻐한다.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 1-11

그때에 ¹ 예수님께서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²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³ 그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 놓고, 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⁵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⁶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⁷ 그들이 줄곧 물어 대자 예수님께서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⁸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⁹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¹⁰ 예수님께서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¹¹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12일 사순 제5주간 화요일

제1독서 <구리 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21.4-9

그 무렵 이스라엘은 ⁴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 산을 떠나 갈대 바다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⁵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⁶ 그러자 주님께서서 백성에게 불 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⁷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⁸ 그러자 주님께서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 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⁹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 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2(101).2-3.16-18.19-21(◎ 2)

- ◎ 주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제 부르짖음이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 주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제 부르짖음이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곤경의 날에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당신 귀를 제게 기울이소서. 제가 부르짖을 때 어서 대답하소서. ◎
- 민족들이 주님 이름을, 세상 모든 임금이 당신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주님은 시온을 세우시고, 영광 속에 나타나시리이다. 햇빛은 이들의 기도를 굽어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리라. ◎
- 오는 세대를 위하여 글로 남기리니, 새로 창조될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이 드높은 성소에서 내려다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굽어보시리니, 포로의 신음을 들으시고, 죽음에 붙여진 이들을 풀어 주시리라. ◎

복음 환호송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21-30

그때에 ²¹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²² 그러자 유대인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니,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하였다.

²³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²⁴ 그래서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정녕 내가 나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자기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²⁵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처음부터 내가 너희에게 말해 오지

않았느냐? ²⁶ 나는 너희에 관하여 이야기할 것도,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참되시기에,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것을 이 세상에 이야기할 따름이다.” ²⁷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²⁸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²⁹ 나를 보내신 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³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13일 사순 제5주간 수요일

제1독서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당신의 종들을 구해 내셨다.>

▣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 14-20, 91-92, 95

그 무렵 ¹⁴ 네부카드네자르가 물었다. “사드락, 메삭, 아벳 느고! 너희가 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또 내가 세운 금 상에 절하지도 않는다니, 그것이 사실이냐? ¹⁵ 이제라도 뿔 나팔, 피리, 비파, 삼각금, 수금, 풍적 등 모든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너희가 엎드려, 내가 만든 상에 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 낼 수 있겠느냐?”

¹⁶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가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이 일을 두고 저희는 임금님께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¹⁷ 임금님,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 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타오르는 불가마와 임금님의 손에서 저희를 구해 내실 것입니다. ¹⁸ 임금님,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께서 세우신 금 상에 절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¹⁹ 그러자 네부카드네자르는 노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를 보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가마를 여는 때에 달구는

것보다 일곱 배나 더 달구라고 분부하였다. ²⁰ 또 군사들 가운데에서 힘센 장정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를 묶어 타오르는 불가마 속으로 던지라고 분부하였다.

⁹¹ 그때에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의 깜짝 놀라 급히 일어서서 자문관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불 속으로 던진 사람은 세 명이 아니더냐?” 그들이 “그렇습니다, 임금님.” 하고 대답하자, ⁹² 임금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 결박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다친 곳 하나 없이 불 속을 거닐고 있다. 그리고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 같구나.”

⁹⁵ 네부카드네자르가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느고의 하느님께서서는 찬미받으소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들의 하느님을 신뢰하여 몸을 바치면서까지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의 하느님 말고는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기거나 절하지 않은 당신의 종들을 구해 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다니 3.52.53.54.55.56

- 주님,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찬미받으소서.
-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당신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거룩한 영광의 성전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거룩한 어좌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커룹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하늘의 궁창에서 당신은 찬미받으소서.
-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복음 환호송

루카 8.15 참조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

8,31-42

그때에 ³¹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³²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³³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³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³⁵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³⁶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³⁷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³⁸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³⁹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⁴⁰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⁴¹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오.”

⁴²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14일 사순 제5주간 목요일

제1독서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7,3-9

그 무렵 ³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⁴ “나를 보아라. 너와 맺는 내 계약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⁵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⁶ 나는 네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⁷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네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네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⁸ 나는 네가 나그네살이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네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⁹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네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5(104),4-5.6-7.8-9(◎ 8ㄱ)

- ◎ 주님은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셨네.
-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그분이 이루신 기적과 이적을, 그분 입으로 내리신 판결을 기억하여라. ◎
-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분이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 하느님, 그분의 판결이 온 세상에 미친다. ◎
- 명령하신 말씀 천대에 이르도록,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시니,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사악에게 내리신 맹세라네. ◎

복음 환호송

시편 95(94),7ㄷ.8ㄴ 참조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8.51-59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⁵¹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⁵²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소. ⁵³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오?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오?”

⁵⁴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다. ⁵⁵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⁵⁶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⁵⁷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쉰 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오?”

⁵⁸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⁵⁹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15일 사순 제5주간 금요일

제1독서 <주님께서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십니다.>

▮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20, 10-13

¹⁰ 군중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마고르 미싸빔이 지나간다!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가까운 친구들마저 모두, 제가 쓰러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속아 넘어가고 우리가 그보다 우세하여, 그에게 복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¹¹ 그러나 주님께서서 힘센 용사처럼 제 곁에 계시니, 저를 박해하는 자들이 비틀거리고 우세하지 못하리이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여 크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들의 수치는 영원히 잊히지 않으리이다. ¹² 의로운 이를 시험하시고,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만군의 주님, 당신께 제 송사를 맡겨 드렸으니, 당신께서 저들에게 복수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소서.

¹³ 주님께 노래 불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8(17).2-3.7.32-4.5-6.7(◎ 7 참조)

- ◎ 곤경 중에 나 주님 불렀더니, 주님이 내 목소리 들으셨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웁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채시웁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죽음의 오랏줄이 나를 두르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삼키며, 저승의 오랏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네. ◎
- 곤경 중에 나 주님 부르고, 하느님께 도움 청하였더니, 당신 성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부르짖는 내 소리 그분 귀에 다다랐네. ◎

복음 환호송

요한 6.63ㄷ.68ㄷ 참조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웁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31-42

그때에 ³¹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³²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 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³³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오.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³⁴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³⁵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신이라고 하였는데, ³⁶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³⁷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³⁸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³⁹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⁴⁰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요르단 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⁴¹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였다.” ⁴²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16일 사순 제5주간 토요일

제1독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리라.〉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7.21ㄴ-28

²¹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²²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악 지방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²³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것들과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 주고 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²⁴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법규들을 따르고 내 규정들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²⁵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너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것이다.

²⁶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불러나게 하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에 두겠다. ²⁷ 이렇게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²⁸ 나의 성전이 그들 한가운데에 영원히 있게 되면,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예레 31,10.11-12나.13(◎ 10번 참조)

- ◎ 주님은 목자가 양 떼를 돌보듯 우리를 지켜 주시리라.
-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 들어라.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흠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양 떼를 돌보듯 지켜 주시리라.” ◎
- 정녕 주님은 야곱을 구하셨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네. 그들은 환호하며 시온 산에 올라와, 주님의 선물을 받고 웃으리라. ◎
-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도 노인도 함께 즐기리라. 나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위로하리라. 그들의 근심을 거두고 즐거움을 주리라. ◎

복음 환호송

에제 18,31 참조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 ◎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 음 <흠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리라.>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45-56

그때에 ⁴⁵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⁴⁶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바리사이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⁴⁷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⁴⁸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오.”

⁴⁹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해의 대사제인 카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⁵⁰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

⁵¹ 이 말은 카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해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곧 예수님께서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것과, ⁵²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리라는 것이다. ⁵³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⁵⁴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 광야에 가까운 고장의 에프라임이라는 고을에 가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⁵⁵ 유대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파스카 축제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⁵⁶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모여 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가 축제를 지내러 오지 않겠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 주 간

〈주님 수난 성지 주일(4월 17일)부터 부활 성야(4월 23일)까지의 예식은 『성주간』(개정 시안) 참조〉

4월 17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복 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 마태오가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 21.1-11

예수님과 제자들이 ¹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 벧파게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²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매여 있는 암나귀와 그 곁의 어린 나귀를 곧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나에게 끌고 오너라. ³ 누가 너희에게 무어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을 곧 보내 줄 것이다.”

⁴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⁵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짐바리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⁶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⁷ 그들은 그렇게 암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겹옷을 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자, ⁸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의 겹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⁹ 그리고 앞서 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¹⁰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성이 술렁거리며, “저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¹¹ 그러자 군중이 “저분은 갈릴래아 나자렛 출신 예언자 예수님이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미 사

제1독서 〈나는 모욕을 받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0.4-7

⁴ 주 하느님께서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⁵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⁶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⁷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2(21).8-9.17-18ㄱ.19-20.23-24(◎ 2ㄱ)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쭈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옵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2독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드높이 올리셨다.>

▣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2.6-11

⁶ 그리스도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⁷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⁸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⁹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¹⁰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¹¹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필리 2,8-9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수난 복음

촛불도, 향도, 인사도, 책에 하던 십자 표시도 없이 읽는다. 부제가 읽든지 부제가 없으면 사제가 읽는다. 평신도도 읽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은 되도록 사제가 읽는 것이 좋다. 부제가 읽을 때에는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축복을 청한다.

✦ 마태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

26, 14—27, 66(또는 27, 11—54)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 부분을 생략한다.

○ 해설자 ✚ 예수님 ● 다른 한 사람 ● 다른 몇몇 사람 ◎ 군중

○ <¹⁴ 그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물었다.

● ¹⁵ “내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 수석 사제들은 은돈 서른 닢을 내주었다. ¹⁶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¹⁷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 ¹⁸ 예수님께서서 이르셨다.

✚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 ¹⁹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²⁰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²¹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 ²² 그러자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묻기 시작하였다.
-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 ²³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²⁴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 ²⁵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물었다.
-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 ²⁶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 ✦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 ²⁷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 ✦ “모두 이 잔을 마셔라. ²⁸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²⁹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 ³⁰ 제자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³¹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 떼가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³²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
- ³³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 “모두 스승님께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 ³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 ✚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 ³⁵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였다.
-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³⁶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겐세마니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 ✚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어라.”
-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³⁷ 베드로와 제베대오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³⁸ 그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 ✚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 ³⁹ 예수님께서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 ✚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 ⁴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 ✚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나? ⁴¹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 예수님께서, ⁴²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 ✚ “아버지, 이 잔이 비켜 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 ⁴³ 예수님께서 다시 와 보시니 제자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⁴⁴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⁴⁵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 ✚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⁴⁶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 ⁴⁷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바로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⁴⁸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⁴⁹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다. ⁵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 “친구야, 네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 그때에 무리가 다가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⁵¹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 버렸다. ⁵²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⁵³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 주실 것이다. ⁵⁴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 ⁵⁵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 무리에게도 이렇게 이르셨다.

✦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⁵⁶ 예언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 그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⁵⁷ 무리는 예수님을 붙잡아 카야파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곳에는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⁵⁸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뜰로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았다. ⁵⁹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 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았다. ⁶⁰ 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섰지만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 ⁶¹ “이자가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 ⁶²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님께 물었다.

● “당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यो?”

○ ⁶³ 예수님께서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다. 대사제가 말하였다.

● “내가 명령하오. ‘살아 계신 하느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

- ⁶⁴ 예수님께서 대사제에게 말씀하셨다.
- ✦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 ⁶⁵ 그때에 대사제가 자기 겹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방금 여러분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⁶⁶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무리가 대답하였다.
- “그자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 ⁶⁷ 그때에 무리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더러는 손찌검을 하면서 말하였다.
- ⁶⁸ “메시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 ⁶⁹ 베드로는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하녀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 “당신도 저 갈릴래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 ⁷⁰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부인하였다.
-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 ⁷¹ 베드로가 대문계로 나가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말하였다.
- “이이는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 ⁷²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다시 부인하였다.
-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 ⁷³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하였다.
- “당신도 그들과 한페임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씨를 들으니 분명하오.”
- ⁷⁴ 그때에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 곧 닭이 울었다. ⁷⁵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27, 1} 아침이 되자 모든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한 끝에, ²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 ³ 그때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그분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치고서는, 그 은돈 서른 닢을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⁴ 말하였다.

●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 수석 사제와 원로들은 말하였다.

● “우리와 무슨 상관이나? 그것은 네 일이다.”

○ ⁵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지고 물러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⁶ 수석 사제들은 그 은돈을 거두면서 말하였다.

● “이것은 피 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어서는 안 되겠소.”

○ ⁷ 수석 사제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옹기장이 받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쓰기로 하였다. ⁸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불린다. ⁹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은 은돈 서른 닢, 값어치가 매겨진 이의 몸값, 이스라엘 자손들이 값어치를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 ¹⁰ 주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대로 옹기장이 밭 값으로 내놓았다.” ¹¹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요?”

○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 ¹²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¹³ 그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 ¹⁴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¹⁵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 주는 관례가 있었다. ¹⁶ 마침 그때에 예수 바라빠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¹⁷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내가 누구를 풀어 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빠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 ¹⁸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¹⁹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 ²⁰ 그동안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라빠를 풀어 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 버리자고 하였다. ²¹ 총독이 물었다.

-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 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 군중이 대답하였다.
- ◎ “바라빠요.”
- ²²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 군중이 모두 외쳤다.
-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 ²³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요?”
-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 ²⁴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요.”
- ²⁵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 ◎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 ²⁶ 빌라도는 바라빠를 풀어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²⁷ 그때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²⁸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²⁹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 ◎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 ³⁰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³¹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겹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³²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³³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 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³⁴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³⁵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겹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³⁶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³⁷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 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다. ³⁸ 그때에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³⁹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⁴⁰ 이렇게 말하였다.

●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 ⁴¹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 ⁴²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⁴³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 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 ⁴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⁴⁵ 낮 열두 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⁴⁶ 오후 세 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뜻이다. ⁴⁷ 그곳에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 ⁴⁸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⁴⁹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 주나 봅시다.”

○ ⁵⁰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

○ ⁵¹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⁵²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⁵³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⁵⁴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 〈⁵⁵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래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시중들던 이들이다. ⁵⁶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제베대오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⁵⁷ 저녁때가 되자 아리마태아 출신의 부유한 사람으로서 요셉이라는 이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⁵⁸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⁵⁹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아마포로 감싼 다음, ⁶⁰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나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러 막아 놓고 갔다. ⁶¹ 거기 무덤 맞은쪽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⁶² 이튿날 곧 준비일 다음 날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⁶³ 말하였다.

- “나리, 저 사기꾼이 살아 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⁶⁴ 그러니 셋째 날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 내고서는,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기만이 처음 것보다 더 해로울 것입니다.”
 - ⁶⁵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 “당신들에게 경비병들이 있지 않소. 가서 재주껏 지키시오.”
 - ⁶⁶ 수석 사제와 바리사 이들은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하였다. >
-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18일 성주간 월요일

제1독서 <외치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2,1-7

¹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²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³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⁴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⁵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펼치신 분, 땅과 거기에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펴신 분,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목숨을, 그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숨을 넣어 주신 분,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⁶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⁷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 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27(26), 1.2.3.13-14(◎ 1ㄱ)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라? ◎

○ 악인들이 달려들어, 이 몸 삼키려 해도, 나의 적, 나의 원수, 그들은 비틀거리다 쓰러지리라. ◎

○ 나를 거슬러 군대가 진을 쳐도, 내 마음 두렵지 않으리라. 나를 거슬러 전쟁이 일어나도, 그래도 나는 안심하리라. ◎

○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저희 임금이신 주님, 당신 홀로 저희 잘못을 가련히 여기시나이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내 장례 날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 요한이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

12.1-11

¹ 예수님께서서는 파스카 축제 옛새 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²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여 있었다. ³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드렸다. 그러자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⁴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⁵ “어찌하여 저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⁶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⁷ 예수님께서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례 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⁸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⁹ 예수님께서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대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¹⁰ 그리하여 수석 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¹¹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19일 성주간 화요일

제1독서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주님의 종의 둘째 노래).>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9,1-6

¹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배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 주셨다. ²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당신의 손 그늘에 나를 숨겨 주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당신의 화살 통 속에 감추셨다.

³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⁴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 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⁵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셨다. ⁶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71(70),1-2.3과 4ㄱ.5-6ㄴ.15ㄴㄷ과 17(◎ 15ㄴㄷ 참조)

- ◎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 의로움으로 저를 건져 구하소서. 제게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
- 이 몸 보호할 반석이 되시고, 저를 구할 산성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보루시웁니다. 저의 하느님, 악인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
- 주 하느님, 당신은 저의 희망, 어릴 적부터 당신만을 믿었나이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나이다. 어미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웁니다. ◎
- 당신 의로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저의 입은 온종일 이야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을 전하여 왔나이다. ◎

복음 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저희 임금이신 주님, 당신은 아버지께 순종하셨나이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이다.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21ㄴ-33.36-38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셔서 ²¹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 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²²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²³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²⁴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깃집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쭙어 보게 하였다. ²⁵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²⁶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²⁷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²⁸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²⁹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³⁰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³¹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³²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³³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³⁶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³⁷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³⁸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20일
성주간 수요일
(장애인의 날)

제1독서 <나는 모욕을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0,4-9ㄱ

⁴ 주 하느님께서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⁵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 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⁶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⁷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⁸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우리 함께 나서 보자. 누가 나의 소송 상대인가? 내게 다가와 보아라.

⁹ 보라,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단죄하는 자 누구인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69(68),8-10.21-22.31과 33-34(◎ 14ㄴㄷ)

◎ 주님, 은총의 때이옵니다.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제 친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

○ 제 마음이 모욕으로 바수어져 저는 절망에 빠졌나이다. 동정을 바랐건만 헛되었고, 위로해 줄 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은 저에게 먹으라 쓸개를 주고, 목마를 때 신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나이다. ◎

○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그분을 기리리라.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

복음 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저희 임금이신 주님, 당신 홀로 저희 잘못을 가없이 여기시나이다.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사람의 아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 마태오가 전한 기록한 복음입니다. 26,14-25

¹⁴ 그때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¹⁵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서른 닢을 내주었다. ¹⁶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¹⁷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¹⁸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¹⁹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²⁰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²¹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²²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²³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²⁴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²⁵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21일
성주간 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

제1독서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1,1-3 7.6 7.8 7.9

¹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 하느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싸매어 주며,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² 주님의 은혜의 해, 우리 하느님의 응보의 날을 선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하게 하셨다. ³ 시온에서 슬퍼하는 이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맥 풀린 넋 대신 축제의 옷을 주게 하셨다.

⁶ 너희는 ‘주님의 사제들’이라 불리고, ‘우리 하느님의 시종들’이라 일컬어지리라.

⁸ 나는 그들에게 성실히 보상해 주고, 그들과 영원한 계약을 맺어 주리라. ⁹ 그들의 후손은 민족들 사이에, 그들의 자손은 겨레들 가운데에 널리 알려져, 그들을 보는 자들은 모두, 그들이 주님께 복 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89(88), 21-22, 25와 27(◎ 2가 참조)

◎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 나는 나의 종 다윗을 찾아내어,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노라. 내 손이 그를 붙잡아 주고, 내 팔도 그를 굳세게 하리라. ◎

○ 내 진실 내 자애가 그와 함께 있으니, 내 이름으로 그의 뿔이 높이 들리리라. 그는 나를 부르리라. “당신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느님, 제 구원의 바위.” ◎

제2독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셨다.>

▣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5-8

⁵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만이이시며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 주셨고, ⁶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의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⁷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⁸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네.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16-21

그때에 ¹⁶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¹⁷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¹⁸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¹⁹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²⁰ 예수님께서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²¹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파스카 성삼일

4월 21일

주님 만찬 성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

제1독서 〈파스카 만찬에 관한 계명〉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12.1-8.11-14

그 무렵 ¹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² “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³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월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⁴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⁵ 이 짐승은 일 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⁶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나흘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⁷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⁸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¹¹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매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¹²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막아들과 말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멸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¹³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¹⁴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6(115), 12-13, 15와 16ㄷㄷ, 17-18(◎ 1코린 10, 16 참조)

◎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당신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이오니,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
- 주님께 감사 제물 바치며 당신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을 채우리라. ◎

제2독서 <여러분은 먹고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1, 23-26

형제 여러분, ²³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²⁴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²⁵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²⁶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13, 34 참조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 1-15

¹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²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³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⁴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겹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⁵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⁶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⁷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⁸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⁹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¹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¹¹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¹²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겹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아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¹³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¹⁴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¹⁵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22일 주님 수난 성금요일

제1독서 <그가 으스스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2.13—53.12

¹³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송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¹⁴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질겁하였다. ¹⁵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 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53.1}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²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돌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³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⁴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별받은 자, 하느님께 매 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⁵ 그러나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⁶ 우리는 모두 양 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⁷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⁸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 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⁹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¹⁰ 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¹¹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¹²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1(30), 2와 6.12-13.15-16.17과 25(◎ 루카 23,46)

- ◎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
-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 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
- 그러나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자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과.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가져라. ◎

제2독서 <예수님께서서는 순종을 배우셨고,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4.14-16; 5.7-9

형제 여러분, ¹⁴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¹⁵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¹⁶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5.7}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 주셨습니다. ⁸ 예수님께서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⁹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필리 2,8-9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 음

✦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입니다.

18,1—19,42

○ 해설자 ✚ 예수님 ● 다른 한 사람 ● 다른 몇몇 사람 ◎ 군중

- 그때에 ¹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² 예수님께서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³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 ✚ “누구를 찾느냐?”
- ⁵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 “나자렛 사람 예수요.”
-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다.
- ✚ “나다.”
-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⁶ 예수님께서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⁷ 예수님께서서 다시 물으셨다.
- ✚ “누구를 찾느냐?”
- 성전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 “나자렛 사람 예수요.”
- ⁸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다.
- ✚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 ⁹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까.”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¹⁰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코스였다. ¹¹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 ¹² 군대와 그 대장과 유대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¹³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해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¹⁴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대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¹⁵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¹⁶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¹⁷ 그때에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가요?”

○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 “나는 아니오.”

○ ¹⁸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 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¹⁹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²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²¹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 ²²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 ²³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 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 ²⁴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²⁵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 “나는 아니오.”
- ²⁶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 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 ²⁷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²⁸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²⁹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 ³⁰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 ³¹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하였다.
-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 ³²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³³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 “당신이 유대인들의 임금이오?”
- ³⁴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 ✦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 준 것이냐?”
-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 ³⁵ “나야 유대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 ³⁶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 ³⁷ 빌라도가 물었다.
-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 ✦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 ³⁸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 “진리가 무엇이요?”
-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소. ³⁹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 주는 관습이 있소. 내가 유대인들의 임금을 풀어 주기를 원하오?”
- ⁴⁰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외쳤다.
- ◎ “그 사람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 주시오.”
- 바라빠는 강도였다. ^{19,1}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²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³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 댔다.
- ◎ “유대인들의 임금님, 만세!”
- ⁴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요.”
- ⁵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 “자, 이 사람이요.”
- ⁶ 그때에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 ◎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 빌라도가 말하였다.
-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지 못하겠소.”
- 그러자 ⁷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 ◎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소. 이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 ⁸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⁹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 “당신은 어디서 왔소?”

○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¹⁰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오? 나는 당신을 풀어 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 ¹¹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 “네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 ¹²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 줄 방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외쳤다.

◎ “그 사람을 풀어 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오.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오.”

○ ¹³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가빠타라고 한다. ¹⁴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열두 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오.”

○ ¹⁵ 그러자 유대인들이 외쳤다.

◎ “없애 버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오?”

○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오.”

○ ¹⁶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¹⁷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¹⁸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¹⁹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²⁰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²¹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 ²²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오.”
 - ²³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²⁴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 “이것은 찢지 말고 누구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자.”
 -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²⁵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²⁶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 ✚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 ²⁷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 ✚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²⁸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 ✚ “목마르다.”
 - ²⁹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³⁰ 예수님께서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 ✚ “다 이루어졌다.”
 -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 〈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
- ³¹ 그날은 준비일이었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³²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³³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³⁴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³⁵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³⁶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³⁷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³⁸ 그 뒤에 아리마태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³⁹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⁴⁰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⁴¹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⁴² 그날은 유대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 부활 대축일

4월 23일 부활 성야

〈모든 축일 전야제의 으뜸인 부활 성야에서는 구약에서 일곱, 신약에서 둘(서간과 복음), 모두 아홉 독서를 봉독한다.〉

〈사목의 이유로 구약 독서의 수를 줄일 수 있으나, 하느님의 말씀 봉독이 부활 성야의 중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적어도 구약에서 세 독서는 읽어야 한다.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두 독서만 봉독해도 되지만 탈출기 14장(제3독서)만은 절대로 생략할 수 없다.〉

제1독서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1—2,2〈또는 1,1.26—31〉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 부분을 생략한다.

¹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² 땅은 아직 풀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³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⁴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⁵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⁶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⁷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⁸ 하느님께서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⁹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곳으로 모여, 물이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¹⁰ 하느님께서서는 물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¹¹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¹² 땅은 푸른 싹을 돋어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어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¹³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¹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빛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¹⁵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빛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¹⁶ 하느님께서서는 큰

빛물체 두 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에서 큰 빛물체는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빛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¹⁷ 하느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¹⁸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¹⁹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흘날이 지났다.

²⁰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²¹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²²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²³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날이 지났다.

²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짐짐승과 기어 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²⁵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짐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²⁶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²⁷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²⁸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²⁹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³⁰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³¹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2.1}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²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고 이렛날에 쉬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4(103).1-2ㄱ.5-6.10과 12.13-14ㄴ.24와 35ㄷ(◎ 30 참조)

-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나이다. 존엄과 영화를 입으시고, 광채를 겉옷처럼 두르셨나이다. ◎
- 땅을 기초 위에 든든히 세우시니, 영영 세세 흔들리지 않으리라. 바다로 땅을 옷처럼 덮으시니, 산 위까지 물이 가득 찼나이다. ◎
- 골짜기마다 샘물 터뜨리시니, 산과 산 굽이굽이 흘러내려, 하늘의 새들은 그 곁에 깃들이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나이다. ◎
- 당신 거처에서 산에도 물 대시니,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고, 사람을 위하여 나물 돋게 하시나이다. ◎
-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그 모든 것 당신 슬기로 이루시니, 온 세상은 당신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제2독서 <우리의 성조 아브라함의 제사>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22.1-18 <또는 22.1-2.9ㄱ.10-13.15-18>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 부분을 생략한다.

그 무렵 ¹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²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곳, 내가 너에게 일러 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³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엮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사악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사를 장작을 팬 뒤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났다. ⁴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자, 멀리 있는 그곳을 볼 수 있었다. ⁵ 아브라함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와 이 아이는 저리로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⁶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번제물을 사를 장작을 가져다 아들 이사악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었다. 그렇게 둘은 함께 걸어갔다. ⁷ 이사악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사악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⁸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⁹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리고 나서 아들 이사악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¹⁰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¹¹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¹²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¹³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덩불에 뿔이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숫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¹⁴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 ¹⁵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¹⁶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네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¹⁷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 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¹⁸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6(15),5와 8.9-10.11(◎ 1)

-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3독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땅을 걸어갔다.>

* 이 독서는 절대로 생략할 수 없다.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14,15—15,1ㄱ

그 무렵 ¹⁵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¹⁶ 너는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¹⁷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¹⁸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¹⁹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나아가던 하느님의 천사가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갔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가 섰다. ²⁰ 그리하여 그것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자 그 구름이 한쪽은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밤을 밝혀 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²¹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서는 밤새도록 거센 셋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²²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²³ 뒤이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²⁴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²⁵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집트 병거들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어, 병거를 몰기 어렵게 만드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 하고 말하였다.

²⁶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로 물이 되돌아오게 하여라.” ²⁷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님께서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처넣으셨다. ²⁸ 물이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선 파라오의 모든 군대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 버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²⁹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³⁰ 그날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 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 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³¹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15.1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를 생략하고 바로 화답송을 한다.〉

화답송

탈출 15, 1ㄴ-2, 3-4, 5-6, 17-18(© 1ㄴ)

-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처넣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은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찬미하리라. 내 조상의 하느님, 나 그분을 높이 기리리라. ◎
- 주님은 전쟁의 용사, 그 이름 주님이시다. 파라오의 군대와 병거를 바다에 내던지시니, 뛰어난 장수들이 갈대 바다에 빠졌네. ◎
- 바닷물이 그들을 덮치니, 돌처럼 깊이 가라앉았네. 주님, 당신 오른손이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시니, 주님, 당신 오른손이 원수를 짓부수셨나이다. ◎
- 당신은 그들을 데려오시어, 당신 소유의 산에 심으셨나이다. 주님, 그 산은 당신 거처로 삼으신 곳, 주님 손수 세우신 성소이옵니다. 주님은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나이다. ◎

제4독서 〈네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영원한 자애로 너를 가없이 여기신다.〉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4, 5-14

⁵ 너를 만드신 분이 너의 남편,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의 구원자, 그분께서는 온 땅의 하느님이라 불리신다.

⁶ 정녕 주님께서서는 너를, 소박맞아 마음 아파 하는 아내인 양, 퇴박맞은 젊은 시절의 아내인 양 다시 부르신다. 너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⁷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크나큰 자비로 너를 다시 거두어들인다. ⁸ 분노가 북받쳐, 내 얼굴을 잠시 너에게서 감추었지만, 영원한 자애로 너를 가없이 여긴다.” 네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⁹ “이는 나에게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물이 다시는 땅에 범람하지 않으리라고, 내가 맹세하였듯이, 너에게 분노를 터뜨리지도 너를 꾸짖지도 않겠다고, 내가 맹세한다. ¹⁰ 산들이 밀려나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자애는 너에게서 밀려나지 않고, 내 평화의 계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가없이 여기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¹¹ 너 가련한 여인아, 광풍에 시달려도 위로받지 못한 여인아. 보라, 내가

석류석을 너의 주춧돌로 놓고, 청옥으로 너의 기초를 세우리라. ¹² 너의 성가퀴들을 홍옥으로, 너의 대문들을 수정으로, 너의 성벽을 모두 보석으로 만들리라. ¹³ 너의 아들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가 되리라. 또 네 아들들의 평화가 넘치리라. ¹⁴ 너는 의로움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압박에서 풀려나리니 네가 두려워할 일이 없으리라. 또 공포에서 풀려나리니 그것이 너에게 닥쳐오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0(29), 2와 4.5-6.11-12 그리고 13나 (◎ 2가 참조)

-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 주님께 충실한 이들아,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5독서 <나에게 오너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라.>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5.1-11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¹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너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²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들이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³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이다. ⁴ 보라, 내가 그를 민족들을 위한 증인으로, 민족들의 지배자와 명령자로 만들었다. ⁵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리니,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까닭이다.

⁶ 만나 뵈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⁷ 죄인은 제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 그를 가엾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⁸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⁹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희 길 위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¹⁰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¹¹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이사 12,2-3.4ㄴㄷㄹ.5-6(◎ 3)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제6독서 <주님의 불빛을 향하여 나아가라.>

▮ 바룩서의 말씀입니다.

3,9-15.32-4,4

⁹ 이스라엘아! 생명의 계명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 예지를 배워라. ¹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원수들의 땅에서 살며, 남의 나라에서 늙어 가느냐? ¹¹ 네가 어찌하여 죽은 자들과 함께 더럽혀지고, 저승으로 가는 자들과 함께 헤아려지게 되었느냐? ¹² 네가 지혜의 샘을 저버린 탓이다. ¹³ 네가 하느님의 길을 걸었더라면, 너는 영원히 평화롭게 살았으리라. ¹⁴ 예지가 어디에 있고 힘이 어디에 있으며,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배워라. 그러면 장수와 생명이 어디에 있고, 눈을 밝혀 주는 빛과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깨달으리라. ¹⁵ 누가 지혜의 자리를 찾았으며, 누가 지혜의 보고에 들어갔는가?

³² 모든 것을 보시는 그분만이 슬기를 아시고, 당신의 지식으로 그것을 찾아내신다. 이 세상이 영원하도록 마련하신 그분께서, 그곳을 네발 가진 짐승들로 채우셨다. ³³ 그분께서 보내시니 빛이 가고, 그분께서 부르시니 빛이 떨어 복종한다. ³⁴ 별들은 때맞추어 빛을 내며 즐거워한다. ³⁵ 그분께서 별들을 부르시니 “여기 있습니다.” 하며, 자기들을 만드신 분을 위하여 즐겁게 빛을 낸다.

³⁶ 이분께서 우리 하느님이시니, 어느 누구도 이분께 견줄 수 없다. ³⁷ 그분께서 슬기의 길을 모두 찾아내시어, 당신 종 야곱과 당신께 사랑받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³⁸ 그리고 나서야 땅 위에 슬기가 나타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⁴¹ 슬기는 하느님의 명령과, 길이 남을 율법을 기록한 책이다. 슬기를 붙드는 이는 살고, 그것을 버리는 자는 죽는다.

² 야곱아, 돌아서서 슬기를 붙잡고, 그 슬기의 불빛을 향하여 나아가라. ³ 네 영광을 남에게 넘겨주지 말고, 네 특권을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지 마라. ⁴ 이스라엘아, 우리는 행복하구나!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9(18), 8.9.10.11(◎ 요한 6.68ㄷ)

-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돌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

제7독서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리고 새 마음을 주겠다.>

▮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6, 16-17 1. 18-28

¹⁶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¹⁷ “사람의 아들이여, 이스라엘 집안이 자기 땅에 살 때, 그들은 자기들이

걸어온 길과 행실로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¹⁸ 그들이 그 땅에 쏟은 피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히며 섬긴 우상들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부었다. ¹⁹ 그래서 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 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 버렸다. 그들의 길과 행실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였다. ²⁰ 사람들이 그들을 두고, ‘이자들은 주님의 백성인데 그분 땅에서 나와야만 했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²¹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안이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 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걱정하게 되었다.

²²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 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²³ 나는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곧 너희가 그들 사이에서 더럽힌 내 큰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²⁴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²⁵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²⁶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 주겠다. ²⁷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²⁸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42(41), 3.5 - 43(42), 3.4 (◎ 42[41], 2)

-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언제 가서 뵈오리이까? ◎
- 영광의 초막, 하느님의 집까지, 환호와 찬미 소리 드높은 가운데 축제의 무리와 행진하였나이다. ◎
- 당신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저를 인도하게 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산, 당신의 거처로 데려가게 하소서. ◎

○ 저는 하느님의 제단으로 나아가오리다. 제 기쁨과 즐거움이신 하느님께
나아가오리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비파 타며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또는, 세례 예식이 있을 때에는 이사야서 12장(제5독서 다음 화답송)을 노래한다.〉

서간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6,3-11

형제 여러분, ³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⁴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⁵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될 것입니다. ⁶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⁷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⁹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¹⁰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¹¹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8(117),1-2.16-17.22-23

◎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복 음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고,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것입니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8.1-10

¹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 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²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³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⁴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⁵ 그때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⁶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⁷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⁸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⁹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¹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24일 예수 부활 대축일

제1독서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10.34-37-43

그 무렵³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³⁷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래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³⁸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 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³⁹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⁴⁰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⁴¹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⁴²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⁴³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8(117), 1-2. 16-17. 22-23(◎ 24)

-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2독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4<또는 1코린 5,6ㄴ-8>

형제 여러분, ¹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²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³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⁴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속가 <오늘은 의무이고, 팔일 축제 동안에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파스카 희생 제물 우리 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 떼들을 구하셨네. 죽음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 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 염포 난 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복음 환호송 1코린 5,7ㄴ,8ㄴ

◎ 알렐루야.

○ 우리의 파스카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또는 마태 28,1-10 또는 저녁 미사에서는 루카 24,13-35>

¹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²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³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⁴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⁵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⁶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⁷ 예수님의 얼굴을 찔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곳에 개켜져 있었다. ⁸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⁹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25일 부활 팔일 축제 내 월요일

제1독서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 14. 22-33

¹⁴ 오순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들으십시오.

²² 이스라엘인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²³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지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²⁴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²⁵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²⁶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²⁷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²⁸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²⁹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³⁰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 주시겠다고 하느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³¹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³²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³³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6(15), 1-2-7과 5.7-8.9-10.11(◎ 1)

-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뿔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부속가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90면 참조〉

복음 환호송

시편 118(117), 24

- ◎ 알렐루야.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알렐루야.

복 음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8, 8-15

그때에 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⁹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¹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¹¹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 사제들에게 알렸다. ¹² 수석 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¹³ 말하였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 갔다.’ 하여라. ¹⁴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 주겠다.”

¹⁵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26일 부활 팔일 축제 내 화요일

제1독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36-41

오순절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³⁶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³⁷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꺾일리듯 아파하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³⁸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³⁹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또 멀리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에게 해당됩니다.”

40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증거를 들어 간곡히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하고 타일렀다.

41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삼천 명가량 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3(32), 4-5, 18-19, 20과 22(◎ 5ㄴ)

◎ 주님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부속가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90면 참조〉

복음 환호송

시편 118(117), 24

◎ 알렐루야.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알렐루야.

복 음 〈제가 주님을 뵈었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 11-18

그때에 ¹¹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¹²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¹³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 갔습니까.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¹⁴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15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 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6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뿌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17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18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27일 부활 팔일 축제 내 수요일

제1독서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3,1-10

그 무렵 ¹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세 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²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 하나가 들려 왔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자선을 청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를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곁에 들어다 놓았던 것이다. ³ 그가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자선을 청하였다.

⁴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나서,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⁵ 그가 무엇인가를 얻으리라고 기대하며 그들을 쳐다보는데, ⁶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⁷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가 즉시 발과 발목이 튼튼해져서 ⁸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쟁충쟁충 뛰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였다.

⁹ 온 백성은 그가 걷기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기도 하는 것을 보고, ¹⁰ 또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자선을 청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경탄하고 경악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05(104), 1-2, 3-4, 6-7, 8-9(◎ 3나)

- ◎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 민족들에게 알려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그 모든 기적 이야기하여라. ◎
- 거룩하신 그 이름 자랑하여라. 주님을 찾는 마음은 기뻐하여라. 주님과 그 권능을 구하여라. 언제나 그 얼굴을 찾아라. ◎
-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그분이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은 주 우리 하느님, 그분의 판결이 온 세상에 미친다. ◎
- 명령하신 말씀 천대에 이르도록, 당신의 계약 영원히 기억하시니,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며, 이사악에게 내리신 맹세라네. ◎

〈부속가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90면 참조〉

복음 환호송

시편 118(117), 24

- ◎ 알렐루야.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알렐루야.

복 음 〈빵을 떼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 13-35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¹³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¹⁴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¹⁵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¹⁶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¹⁷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¹⁸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¹⁹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²⁰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²¹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²²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²³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알려 주더랍니다. ²⁴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²⁵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굵뜨냐? ²⁶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²⁷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²⁸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²⁹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³⁰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³¹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³²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³³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³⁴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³⁵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28일 부활 팔일 축제 내 목요일

제1독서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3.11-26

그 무렵 치유받은 불구자가 ¹¹ 베드로와 요한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온 백성이 크게 경탄하며 ‘솔로몬 주랑’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달려갔다. ¹² 베드로는 백성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인 여러분, 왜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또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거나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니까? ¹³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사악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¹⁴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 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¹⁵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¹⁶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 주었습니다.

¹⁷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탕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¹⁸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¹⁹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²⁰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 주실 것입니다. ²¹ 물론 이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²²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서는 너희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야 한다. ²³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에게서 잘려 나갈 것이다.’²⁴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예언자도 지금의 이때를 예고하였습니다.

²⁵ 여러분은 그 예언자들의 자손이고, 또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희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시며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어 주신 계약의 자손입니다. ²⁶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종을 일으키시고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아서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8,2ㄱ과 5.6-7.8-9(◎ 2ㄱ)

- ◎ 주님, 저희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크시옵니까!
- 주님, 저희 주님,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시나이까? ◎
-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나이다. 당신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나이다. ◎
-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이옵니다. ◎

〈부속가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90면 참조〉

복음 환호송

시편 118(117),24

- ◎ 알렐루야.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알렐루야.

복 음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35-48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³⁵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³⁶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³⁷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³⁸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이느냐? ³⁹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⁴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 주셨다.

⁴¹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⁴²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⁴³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⁴⁴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⁴⁵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다.

⁴⁶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⁴⁷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⁴⁸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29일 부활 팔일 축제 내 금요일

제1독서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4.1-12

불구자가 치유받은 뒤 ¹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가이들이 다가왔다. ²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고 있었다. ³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⁴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 명가량이나 되었다.

⁵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⁶ 그

자리에 한나스 대사제와 카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그 밖의 대사제가 문 사람들도 모두 있었다. ⁷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 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⁸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⁹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¹⁰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¹¹ 이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¹²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8(117), 1-2와 4.22-24.25-27ㄴ(◎ 22)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

〈부속가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90면 참조〉

복음 환호송

시편 118(117), 24

- ◎ 알렐루야.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 알렐루야.

복 음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1-14

그때에 ¹ 예수님께서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²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래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대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³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⁴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⁵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⁶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 올릴 수가 없었다.

⁷ 예수님께서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겹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⁸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물에서 백 미터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⁹ 그들이 물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¹⁰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¹¹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물으로 끌어 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선세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¹²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¹³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¹⁴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4월 30일
부활 팔일 축제 내 토요일

제1독서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4,13-21

그 무렵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은 ¹³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¹⁴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였다.

¹⁵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최고 의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다음, 저희끼리 의논하며 ¹⁶ 말하였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통하여 명백한 표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진 터이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¹⁷ 그러니 이 일이 더 이상 백성 가운데로 퍼져 나가지 않도록, 다시는 아무에게도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만 합시다.”

¹⁸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 ¹⁹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²⁰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²¹ 그들은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거둬 위협만 하고 풀어 주었다. 그 일로 백성이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8(117),1과 14-15나,16-18,19-21(◎ 21ㄱ 참조)

- ◎ 주님, 제게 응답해 주셨사오니,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 소리. ◎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님은 나를 벌하고 벌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네. ◎

○ 정의의 문을 열어라. 그리로 들어가 나는 주님을 찬송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문, 의인들이 들어가리라. 당신은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사오니, 저는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 주님, 제게 응답해 주셨사오니,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부속가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90면 참조〉

복음 환호송

시편 118(117),24

◎ 알렐루야.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알렐루야.

복 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9-15

⁹ 예수님께서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서 일곱 마귀를 쫓아 주신 여자였다. ¹⁰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¹¹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서 살아 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¹² 그 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¹³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¹⁴ 마침내, 열한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¹⁵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